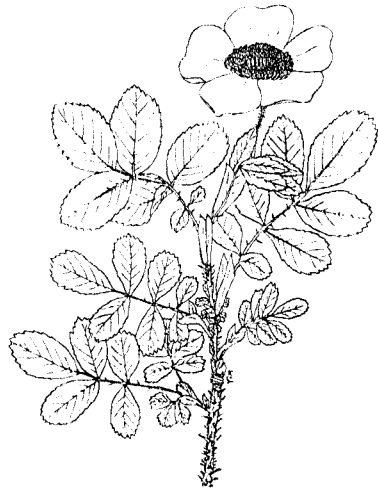


조경수목 산책 42

해당화(1)



임경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해당화의 노래

해당화 열매도 무척 아름답지만 무어니해도 해당화는 꽃으로 한 몫한다. 꽃이 해당화의 전부라해도 좋다. 창조자의 신이 창작한 꽃 중에서 이 꽃이 으뜸간다해도 좋다. 꽃 중의 꽃이다. 신이 만들어 놓고 환희의 미소를 보낸 것도 해당화의 꽃이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확트인 바닷가 모래사장에 해당화를 배식한 것도 무언가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설탕보다도 더 희고 눈보다 더한 모래밭을 배경으로 해서 해당화의 무늬를 수놓은 것은 그 이유를 알상하기도 하다. 때로

는 금모래빛 별관에 그 꽃을 사정없이 뿌려 놓기도 한다. 어울리는 배색이요 공간설계이다.

다음 시가 어울린다.

꽃의 찬미

구름은 저고리로 되고
푸른바다는 치마로 되었소.
무지개는 동정과 꿈동이 되어
찬란하게 눈 부셨소.

구름이 개이고



▲ 해당화 백령도 연화리(1998. 5.14)



▲ 피기전에 해당화(1998. 5.14)



▲ 곁해당화(1998. 5.18)



▲ 해당화의 열매 쓰러진 모스크에서



▲ 해당화 꽃봉우리(1998. 5.14)



▲ 해당화 백령도 천연비행장에서(1998. 5.13)

바다물이 거칠 때
해당화의 꽃잎은
나비로 되었소.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에
기도를 올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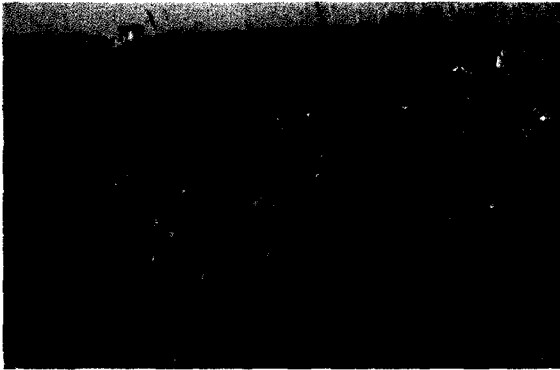
심장의 고통이
높은 하늘에 메아리치고
산울림으로
되돌아 올 때
나는 또 한번
예배를 들었소.

흰 모래밭 푸른 바다 이것을 이어주는 공기로 찬 공간. 이에는 티끌만한 오염도 없다. 깨끗할 뿐이다. 이곳

을 찾아 자리잡은 해당화의 발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영광의 절정에 올라있는 듯 한 해당화에도 낙화라는 슬픔은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슬퍼하기도 했다. 해당화를 본 적이 없는 산촌마을의 안방에까지 해당화는 노래로서 찾아들었다. 그것은 향간에 유행하는 노래이기도 했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위말며
잎진다고 설위말라
동삼(冬三) 석달 꼭 족였다.
명년삼월 다시오리

이 노래는 무상한 만물의 윤회를 해당화 꽃잎의 일시적인 영광을 인식하면서도 또 한번 돌아올 그때를 격려의 실마리로 하고 있다. 꽃은 원래 피었다가 지고 지고 선 또 피어내는 생리가 있다. 감미로운 다음 노래



▲ 해당화밭 백령도(1998. 5.14)



▲ 해당화의 꽃봉우리 쏘련 모스크에서

에도 해당화의 피고 짐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화 타고지는
섬마을에
칠새나라 찾아온
총각선생님
열아홉살 섬백사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선생님
서울에는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총각선생님

이처럼 해당화는 바닷가 섬의 모래사장에 어울린다. 해변의 모래밭을 뒤덮은 해당화의 꽃밭을 문일평선생은 그의 저서 화하만필(花下漫筆)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묘사를 하고 있다. 배울만하다.

『몽금포(夢金浦)는 해당화의 명소(名所)이니 백설같은 가는 모래가 햇볕에 비칠 때는 금색(金色)이 번쩍여 눈이 부시고 바람이 불 때는 유전(流轉, 흘러 감돌아)하여 혹은 기봉(奇峯)이 되고 혹은 깊은 골짜기가 되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변환(變幻)이 있으며 모래밭 속에는 해당화가 피어 마치 황금 위에 붉은 비단을 펼친 것과 같아서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보는 이로 오직 경탄케 할 뿐이요, 말로 형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조화(造化)의 장난도 이만하면 어지간한 것이다.』

해당화의 명소인 울진 망양정(望洋亭)의 십리명사(十里明沙)는 그 중에서 가장 현저한 곳으로서 해당이 만발할 때는 금수(錦繡)라 할는지, 서화(書畫)라 할는

지, 관동(關東)의 승경(勝景)이 여기있다 한다.

이 명사해당에 대하여 유명한 노래가 있으니

문노저 선사(禪師)야
관동풍경 어뎠더니
명사십리에 해당화 붉어 있고
원포(遠浦)에
양양(兩兩)백구는
비소우(飛疎雨) 하더라

이 시조는 고려승 선탄(禪坦)의 유영동시(遊嶺東詩)인

명사십리해당홍 明沙十里海棠紅
백구양양비소우 白鷗兩兩飛疎雨

에서 얻어진 것이라 한다. 선탄은 이 시로 해서 크게 이름이 나서 소우선사(疎雨禪師)라 일컬음에 이르렀다 하거니와 해당의 일명은 해홍(海紅)으로 조선해당은 중국 것과 다르니 즉 홍장미의 류에 불과하며 관동해서(關東海西)의 곳에 있는 금사해당(金沙海棠)은 뿌리도 없고 잎도 없이 해변 모래밭에 여기저기 흩어져 나 있는 심홍색의 꽃이니 바라보면 떨어진 꽃이 땅 위에 점철하듯 하여 아주 현란하지만 이것은 해당의 다른 종류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은 중국 것보다도 근역(槿域)이 더 유명하다.

이상은 모두 흥미있는 묘사이다. 그 중 비소우(飛疎雨)는 시어(詩語)로서 어떤 극치의 미를 형용하고 있

다. 성기게 흠뿌리는 빗방울 속을 나는 갈매기 쌍쌍이
며 비에 젖어 있는 해당화며 아름다움의 절정에 놓여
있다. 꽃은 비에 젖을 때 그 진가의 미가 발현된다.

그리고 뿌리도 없고 잎도 없는 해당화가 있다니 그
것은 더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주룩주룩 따르는 즐기찬 빗속에서 꽃을 감상한다는
것은 무언가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

붉은 해당화와 차분하게 내리는 비의 광경의 배합은
또 한 수의 시로서 감상할 수 있다. 즉 다음이 있다.

해당불석연지색 海棠不惜胭脂色
독립몽몽세우중 獨立濛濛細雨中

풀이해 보면

해당화는 붉은 연지를 아낌없이 쓰고 홀로 가물가물
가랑비 속에서 서 있다.

이 얼마나 황홀한 시나. 해당화를 지극하게 미화하고
있다. 더할 수 없을 지경이다.

증단백(曾端伯)의 화중십우(花中十友)

중국 송나라 시대 증단백이란 사람은 열가지 꽃을
골라서 화중십우로 삼았다. 중국에서 선발된 것이라 그

중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것도 있다. 그리고 사람(책)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
나 별문제로 될 것은 없다. 다음에 그것을 들어본다.

방우(芳友 꽃다운 벗, 난초), 청우(淸友 맑은 벗, 매
화), 수우(殊友 이상한 벗, 서향), 정우(淨友 깨끗한 벗,
연꽃), 선우(禪友 선의 대상이 되는 벗, 포도, 포도꽃이
선발된 것은 이색적인 느낌이 든다), 기우(奇友 기이한
벗, 남매, 우리에게 좀 생소하다), 가우(佳友 아름다
운 벗, 국화), 선우(仙友, 신선과 같은 벗, 계수나무, 이
것도 우리에게 인연이 멀다), 명우(名友 이름이 난 벗,
해당화), 운우(韻友 황매화)

이때 해당화는 명우(名友)로 되어있다.

또 장민숙(張敏叔)이 선택한 열두가지 꽃을 화객(花
客)이라 이름 붙였는데 그 안에는 해당화가 들어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는데 음미할만하다.

즉 화괴(花魁)라 하면 꽃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이
꽃의 우두머리를 혹은 매화라고도 했고 난초라고도 했
다. 연꽃을 화중군자(花中君子)라 하고, 국화를 꽃 중
의 은일(隱逸)이라 하고, 모란을 꽃 중의 왕이라고 하
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작약을 화약(花藥)이라
하고 해당화를 꽃 중의 신선이라 한다.

이때 해당화가 신선으로 추켜진 데에는 다시 한 번
더 감상할 여지가 있다. 해당화가 살아가는 주변은 한
없이 깨끗하고 오염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신선이 거
처할 곳으로 이해할만하다. **조경수**

